

내현적 자기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신주애¹, 조한익^{2*}

¹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²한양대학교 교육학과

The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he Life Satisfaction

Shin Joo Ae¹, Jo Han Ik^{2*}

¹Department of Candidate in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Ph.D

²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30대 성인 43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였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넷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20~30대들의 내현적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있어 정서표현 양가성이 주요한 매개적 변수로서의 역할 확인으로 억압해왔던 감정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서표현의 주요한 역할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20~30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문제 중 한 가지인 삶의 만족도와 그 중에서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문제의 원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의의로 볼 수 있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life satisfaction by applyi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for adults in their 20s and 30s in Korea. To this end, a self-reported survey was conducted on 433 adults, an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Second,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emotional expression falsified life satisfaction. Third,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covert narcissism falsified life satisfaction. Fourth,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ambivalence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mediating effects. Based on our result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understanding and proper emotional ex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hich has been suppressed by identifying their role as a major parameter. In addition, this study was able to explore the causes of social problems for those in their 20s and 30s.

Keywords : 20s and 30s, Covert Narciss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anIk Jo(Hanyang Univ.)

email: 1990434@hanyang.ac.kr

Received July 16, 2020

Accepted September 4, 2020

Revised August 27, 2020

Published September 30, 2020

1. 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주거, 소득, 일자리, 삶의 만족도 등 객관적·주관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 11개 영역을 평가하는 Better Life Index(BLI)를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경우 BLI에서는 OECD 36개국 중 하위권에 속해 있다. 그리고 국민행복지수 계산 방법론을 기초로 국가 간 행복수준 지수 중 중 삶의 만족도의 경우 하위권 국가인 멕시코(0.60), 칠레(0.48), 폴란드(0.25)보다 낮은 수치인 0.16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1]. 낮은 삶의 만족도는 높은 자살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살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최종평가로 보고할 정도로 낮은 삶의 만족도는 높은 자살률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2]. 안타깝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대부터 30대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살이다[3]. 특히 2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의 약 5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조차도 자신의 무능함으로 돌리며 치료를 받을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다[4]. 최근의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등으로 번역되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Diener[5]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기준과 현재 상황에 근거한 인지적 판단의 정도로 보았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복지감', '복지' 또는 '안녕감', '안녕'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감 긍정적·부정적 정서, 사기와 같은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상태로 개념화하고 있다[6-7]. 또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같은 개념으로도 보고 있으며[8], 양옥경[9]는 주관적 복지감 또는 삶의 만족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기애를 들 수 있다. 자기애는 Freud[10]가 자기 자신을 성 본능의 충족대상으로 삼는 자기성애와 자신에게 투여되어 있던 리비도 에너지가 외부 대상에게 옮겨져 성립되었던 대상애(object love) 간의 심리성적 발달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경험적[11]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12]으로도 지지된다. Rose[13]는 연구를 통해 외현적 자기애는 만성적인 자기고양에서 오는 이득으로 인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 높다고 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불안과 불안정성, 타인의 평가에 대한 예민성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낮은 삶의 만족도를 확인했다. 즉,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살면서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내현적 자기애는 그 영향력이 높고, 상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볼 수 있다. 자기애는 생애 초기에 발달하여 전 생애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다. 그러나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대학생을 위주로 한 연구만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확대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더불어 인간의 안녕감에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계속 제시되고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이러한 욕구를 억제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4]. 이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부적응적인 행동이라기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며 일어나는 이면의 심리적 갈등,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심리적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15]. Emmons와 Colby[16]은 연구를 통해 정서표현 양가성은 삶의 만족도 및 긍정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갖으며, 부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밝혀냈다. 선행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은 부정정서를 대부분 느끼면서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적응지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15, 17-19].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경증, 우울, 반추와 같은 심리적 고통증상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20-21].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22]. 이처럼 정서표현 양가성은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수치스러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어 작용이 될 수 있다[23-24].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의 결과들을 참고하여, 20, 30대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내현적 자기애

자기애는 19세기 후반, 성(性) 의학자인 Havelock Ellis가 1898년 도착 행동을 정의하려고 한 남성의 자기 성애(Auto-eroticism) 사례를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Narcissus) 이야기를 빗대어 사용한 이래, 프로이트 학파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30].

자기애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양상에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되는데,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자기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과 칭찬에 대한 욕구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25](김준모, 2015). 또한 자신이 뭔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창피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쓸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낀다[26](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특징은 외적으로는 자기애와 연관되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나는 상처받거나 밉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애적, 자기도취적 심리특성을 반영하고 있다[27](이은지, 2015).

2.2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면서도 표현할지 말지를 고민하거나, 표현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특성이 있다[14](King & Emmons, 1990). Emmons와 Kaiser(1996)는 강렬한 양가성이란 갈등의 형태로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긍정, 부정의 느낌이 동시에 혹은 빠르게 교차하는 것으로 한 대상을 동시에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간 갈등

이라고 설명하였다[28].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정서표현에 대한 욕구가 개인의 다른 욕구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다른 목표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며 갈등을 느끼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개발하였다[14].

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또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삶의 질(subject quality of life) 또는 행복(happiness)등의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어 왔다[29](조명환 외, 1998). 삶의 만족도란 자신이 실제 성취한 바와 자신이 소망하던 것을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여기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지과정이다[30](Lyubomirsky, 2001). 또한 일상의 전반적인 활동영역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며,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31](김종경, 2012). 김남정과 임영식(2012)은 주관적인 인식에 의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으로서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만족도로 정의하였다[32]. 또한 임춘식과 박미연(2011)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삶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로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33].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자신의 삶에 스스로 평가하고 얼마만큼 만족하는가에 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한다.

2.4 선행연구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거나 우정을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타인을 지배하거나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대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어한다[34](이성미, 2016). 특히 외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과는 달리 자기 개념에 부정적이고 우울한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34](이성미, 2016). 즉,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은 외적으로 적응적 행동을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 세계는 병리적이어서 남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지루함과 공허감을 느낄 수 있다[26](권석만, 한수정, 2000). 특히 내현적 자기애에 해당하는

취약성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앞서 기술된 대인관계 양상과 함께 방어적이며 불안하고 민감하여 사회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은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35](Dickinson & Pincus, 2003).

정서표현 양가성과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주관적 안녕감 및 정서적 지지에 부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검증된 바 있으며[36](이주일 외, 1997), 하정(1997)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문제 중심적 대처에 실패하여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37].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결과로서, 김성미(2013)가 노인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부정적 정서강도가 상호작용하여 삶 만족과 정적정서를 낮추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38].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정서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정서표현에 서투른 사람보다 삶 만족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16](Emmons & Colby, 1995),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어 안정감이 생기고 정서를 정화시켜 자기이해를 높이고 당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킨다[39](Lieberman et al., 2007). 이렇듯 많은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삶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내현적 자기에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선행연구는 신혜인(2009)은 내현적 자기에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정서보다 주관적으로 보다 더 크게 느끼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정서인지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 관계상에서 상대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0]. 정진호(2016)는 내현적 자기에를 지닌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내면의 자기상에 손상이 갈까 예민하고 민감해지게 된다고 하였다[41].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자신이 느낀 정서를 표현했을 때 거부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표현 갈등을 많이 할 것임[29, 42]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에,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는 서로 간에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내현적 자기에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20, 30대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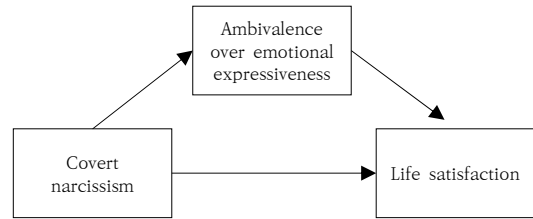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내현적 자기에는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정서표현 양가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내현적 자기에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내현적 자기에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절차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설문조사에 동의한 만 19세 이상 20~30대 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배부된 총 4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부를 제외하고 총 433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228명(52.7%)으로 남자 205명(47.3%)에 비해 23명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20대가 325명(75.1%), 30대가 108명(24.9%),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14명(49.4%)으

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재학 90명(20.8%), 전문대 졸업 62명(14.3%),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 30명(6.9%), 고졸 28명(6.5%), 전문대 재학 9명(2.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 최종학력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분석 결과 성별에 대해서 내현적 자기에,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내현적 자기에($t=4.320$, $p<.001$)와 정서표현 양가성($t=2.041$, $p<.05$), 삶의 만족도($t=2.793$, $p<.01$)에서 20대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내현적 자기에,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 tes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Covert narciss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Life satisfaction
Sex	Man M (SD)	2.98 (.517)	3.16 (.660)	3.46 (1.309)
	Woman M (SD)	3.01 (.501)	3.21 (.658)	3.33 (1.110)
t/F		-0.709	-0.732	1.077
p		.479	.465	.282
Age	20's M (SD)	3.05 (.499)	3.22 (.665)	3.49 (1.172)
	30's M (SD)	2.82 (.495)	3.07 (.630)	3.11 (1.278)
t/F		4.320	2.041	2.793
p		.000	.042	.00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younger M (SD)	3.02 (.397)	3.21 (.513)	3.90 (1.299)
	College attendance M (SD)	2.98 (.357)	3.45 (.652)	3.17 (.968)
	Graduated from college M (SD)	3.10 (.510)	3.27 (.528)	3.40 (1.244)
	University attendance M (SD)	2.96 (.474)	3.15 (.643)	3.38 (1.179)
	Graduated from university M (SD)	2.99 (.530)	3.16 (.719)	3.38 (1.172)
	Master's or higher M (SD)	2.88 (.570)	3.23 (.631)	3.10 (1.400)
	t/F	0.905	0.666	1.425
p	.477	.649	.214	

*** $p<.001$, ** $p<.01$, * $p<.05$

3.3 측정도구

3.3.1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의 측정은 Akhtar와 Thomson[12]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강선희와 정남운[43]이 수정,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5문항으로서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커질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성은 목표 불안정 9문항,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9문항,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부족 8문항의 총 4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목표불안정 .888,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10, 착취/자기중심성 .827, 과민/취약성 .856, 소심/자신감부족 .780이며, 전체 .935로 나타나 신뢰성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3.2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4]가 개발하고 최해연과 민경환[44]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자기방어적 정서표현 양가성(이하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정서표현 양가성(이하 관계관여적 양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높은 점수일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 혹은 관계관여적 양가성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의 구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 13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 8문항의 총 2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922, 관계관여적 양가성 .865이며, 전체 .937로 나타나 신뢰성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3.3 삶의 만족도

Diener 외[45]가 개발한 것으로 류연지[4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으로는 '나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훌륭하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와 같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인 7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792로 나타나 신뢰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4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결측값과 오기 문항을 선별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의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percentage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변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확인된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Sobel-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분석은 95% 신뢰구간($p < .05$)에서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내현적 자기에,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Table 2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2번 문항은 요인 부하량(λ)이 0.5미만으로 나타나 삭제하였으며, 이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후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19에서 0.995로 나타나고 있어 각 요인에 관한 수렴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chi^2=168.889(p=.000, df=37)$, $GFI=0.934$, $CFI=0.946$, $NFI=0.932$, $IFI=0.946$, $TLI=0.919$, $RMR=0.055$, $RMSEA=0.081$ 로 나타나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기준치 0.7, 0.5이상으로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Covert narcissism	→ Target instability	.693	Fix	-	.925	.721
	→ Hypersensitivity /fragility	.928	.072	17.170***		
	→ Lack of timidity /confidence	.791	.061	15.195***		
	→ Request for recognition/ great self-repayment	.621	.067	10.795***		
	→ Exploitation /self-centeredness	.519	.061	10.499***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Self-defense	.995	Fix	-	.919	.854
	→ Relationship	.696	.033	19.969***		
Life satisfaction	→ Life satisfaction 1	.755	Fix	-	.839	.573
	→ Life satisfaction 3	.590	.066	9.619***		
	→ Life satisfaction 4	.848	.074	15.310***		
	→ Life satisfaction 5	.547	.067	8.846***		

*** $p < .001$, ** $p < .01$, * $p < .05$

4.1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내현적 자기에 중 과민/취약성은 정서표현 양가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r=.673, p < .001$)과 가장 높은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심/자신감부족은 관계관여적 양가성($r=.481, p < .001$)과 가장 높은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내현적 자기에 중 과민/취약성($r=-.566, p < .001$)과 정서표현 양가성 중 자기방어적 양가성($r=-.510, p < .001$)과는 가장 높은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0.273~0.673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척도와 왜도가 ± 2.00 을 넘지 않게 나타나 본 연구 변인은 정규분포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1	2	3	4	5	6	7	8
1. Target instability	1							
2. Hypersensitivity / fragility	.633***	1						
3. Lack of timidity / confidence	.589***	.738***	1					
4. Request for recognition/ great self-repayment	.273***	.598***	.397***	1				
5. Exploitation / self-centeredness	.330***	.507***	.352***	.493***	1			
6. Self-defense	.548***	.673***	.631***	.472***	.351***	1		
7. Relationship	.315***	.470***	.481***	.430***	.295***	.693***	1	
8. Life satisfaction	-.383***	-.566***	-.438***	-.404***	-.550***	-.510***	-.306***	1
Mean	2.92	2.98	2.88	2.83	2.58	2.96	2.68	3.39
SD	0.747	0.692	0.609	0.606	0.639	0.738	0.694	1.208
Descriptive Skew	.035	.031	-.017	-.212	.293	-.156	-.369	.068
Statistic Kurtosis	-.142	-.068	.211	.338	.482	.014	.559	-.077

*** $p < .001$, ** $p < .01$, * $p < .05$

4.2 연구가설 분석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2 = 168.827 (p = .000, df = 36)$, $GFI = 0.934$, $CFI = 0.945$, $NFI = 0.932$, $IFI = 0.946$, $TLI = 0.917$, $RMR = 0.056$, $RMSEA = 0.082$ 등으로 나타나 X^2 , GFI , CFI , NFI , IFI , TLI , RMR ,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Table 4. Research model fit

$X^2(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47.418 ($p = 0.000$)	16	.934	.945	.932	.946	.917	.056	.082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내현적 자기애는 정서표현 양가성($\beta = .75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삶의 만족도($\beta = .54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삶의 만족도($\beta = .224,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Covert narcissism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755	.074	14.391***	.000	Si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Life satisfaction	-.224	.119	-3.085**	.002	Sig.
Covert narcissism	→	Life satisfaction	-.545	.187	-6.743***	.000	Sig.

*** $p < .001$, ** $p < .01$, * $p < .05$

다음 Table 6은 내현적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p < .001$),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 < .01, p < .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 양가성에 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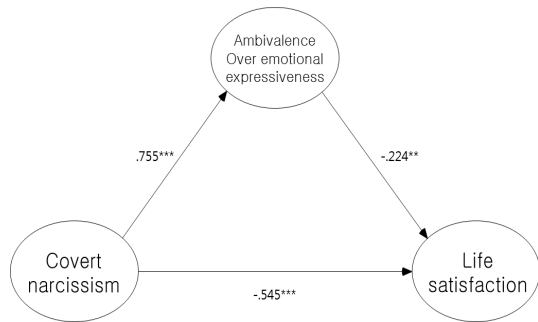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Results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Covert narciss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Life satisfaction	-.515**	.000	-.169*	.003	-.714**	.000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해 간접효과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47],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매개효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Sobel-test resul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Covert narciss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Life satisfaction	-3.015**	.003

*** $p < .001$, ** $p < .01$, * $p < .05$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20대부터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정서표현 양가성,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 경향을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48-49]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은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모두 가장 큰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이 정서표현의 양가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본인의 정서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정서를 표현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2-23]. 반면 내현적 자기애의 하

위요인 중 착취/자기중심성은 타 하위요인들과 달리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 자기애의 특성 중 하나인 착취/자기중심성은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인데, 자기중심적이기에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면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50-52]의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경우는 표현행동억제와 더불어 자신의 정서경험에 대한 회피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건강과의 부적인 관련도 대부분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설명되어졌다[26]는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는 김은혜(201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53].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상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 불안전성, 불안, 평가 예민성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선행연구[54-55]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을 많이 느끼며, 이러한 양가적 감정을 많이 가질수록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 중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 중 한 가지인 낮은 삶의 만족도와 그 중에서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이 대상이 가진 문제의 원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의의로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관계지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정서적 표현의 억제를 미덕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 측면

에서 평가에 대한 취약성과 과민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지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56]. 그리고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57].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겠다.

솔직한 정서 표현이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표현을 한다면 좀 더 건강한 정서 및 대인관계와 더불어 더 나은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특성으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 중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우리나라 20-30대들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상담 장면에서도 개입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속성을 가진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대한 개입보다는 정서표현 양가성 성향에 대한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정서표현 양가성 성향 중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자신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여 거부되거나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더 강하게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이러한 정서표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연습을 통해 방법을 익히고 두려움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개입을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문화를 진단해보고 사회적 문화로의 진입하기 위한 적응 훈련을 통하여 양가감정을 갖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대부터 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20대에 편중되어 있어 20~30대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자기 보고식 척도를 사용한 설문지 수집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이지만, 자기 보고식의 한계에 의해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편향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개인의 모습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과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H. C. Lee, K. J. Koo, "Capability-based happiness index: An application to the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29, No.3, pp.115-140, 2019.
- [2] S. Y. Lee, S. M. Chae, J. O. Jung, S. M. Yoon, *Reinforcing the care programs for the suicide attempters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25-26, 2017.
- [3] S. W. Kim, M. Jun, M. N. Kim, J. W. Baeck, J. M. Kim, J. S. Yoon, "A social psychiatric approach to suicide preventio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62, No.2, pp.93-101, 2019.
- [4] S. Y. Yang, H. K. Shin,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on psychological acceptance,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4, No.2, pp.761-782, 2013.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3.32.4.001>
- [5] E. Diener,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31, pp.103-157, 1994. DOI: https://doi.org/10.1007/978-90-481-2354-4_3
- [6] H. S. Park, *The effect of shooting ability on stress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of Korea, pp.5-6, 1999.
- [7] S. K. Lee, H. J. Lee, "Employe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3, No.6, pp.25-41, 1995.
- [8] J. W. Choi, S. H. Lee, "The child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Development and valid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3, No.4, pp.227-248, 2002.
- [9] O. K. Yang, "Develop a scale for measuring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24, pp.157-198, 1994.
- [10] S. Freud, *On narcissism :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14), 1953.
- [11] P. Wink,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4, pp.590-597, 1991.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1.4.590>
- [12] S. Akhtar,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No.1, pp.12-20, 1982. DOI: <https://doi.org/10.1176/ajp.139.1.12>
- [13] P. Rose,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3, pp.379-391, 2002.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162-3](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162-3)
- [14] L. A. King, R. A. Emmons,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 pp.864-877,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8.5.864>
- [15] J. W. Pennebaker,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u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Vol.26, pp.82-95, 1985.
DOI: <https://doi.org/10.1037/h0080025>
- [16] R. A. Emmons, P. M. Colby,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 pp.947-959,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8.5.947>
- [17] R. A. Emmons,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5, pp.1058-1068,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5.1058>
- [18] L. A. King, "Emotional expression, conflict ov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10, pp.601-607, 1993.
DOI: <https://doi.org/10.1177/0265407593104008>
- [19] R. A. Emmons, L. A. King, "Conflict among personal strivings: Immediate and long-term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No.6, pp.1040-1048,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4.6.1040>
- [20] I. M. Katz, J. D. Campbell,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7, No.3, pp.513-524, 1994.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7.3.513>
- [21] M. Mongrain, D. C. Zurof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6, No.3, pp.447-458, 1994.
DOI: [https://doi.org/10.1016/0191-8869\(94\)90071-x](https://doi.org/10.1016/0191-8869(94)90071-x)
- [22] M. S. Kang,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nalized shame*,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21-23, 2011.
- [23] J. Y. Lee, "The relationship of internalized shame, defense style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9, No.2, pp.353-373, 2008.
DOI: <https://doi.org/10.15703/kjc.9.2.200806.353>
- [24] E. Y. Lee, *Covert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of Korea, pp.28-30, 2013.
- [25] J. M.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addiction disposition*, Doctoral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15-18, 2015.
- [26] S. M. Kwon, S. J. Han, *Self-generated personality disorder*, Seoul: Hakjisa, 2000.
- [27] E. J. Lee,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ddiction tendency to SNS: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Master's thesis, Soon Chun Hyang University of Korea, pp.18-19, 2015.
- [28] R. A. Emmons, H. A. Kaiser, *Goal orient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Linking goals and affect through the Self*. In: L. L. Martin & A. Tesser (Eds.) *Striving and feeling: interactions among goals, affect, and self-regulation*. (pp. 79-9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6.
- [29] M. H. Cho, K. H. Cha, *International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Seoul: Jibmundang, 1998.
- [30] S. Lyubomirsky,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6, No.3, pp.239-249, 2001.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39>
- [31] J. K. Kim, *The corelation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y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12-13, 2012.
- [32] N. J. Kim, Y. S. Lim, "The verification of intervening effect of youth ac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8, pp.219-240, 2012.
- [33] C. S. Lim, M. Y. Park, "A study on old people's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52, pp.131-154, 2011.
DOI: <https://doi.org/10.21194/kjgsw.52.201106.131>
- [34] S. M. Lee, *Effect of Narcissism on partner evalu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25-27, 2016.
- [35] K. A. Dickinson, A. L. Pincus,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ol.17, No.3, pp.188-207, 2003.
- [36] J. I. Lee, S. H. Hwang, J. W. Han, K. W. Min, "The influence of emotional experience and express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1, No.1, pp.117-140, 1997.
- [37] J. Ha,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on depression : Intergrative study on human'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pp.19-21, 1997.
- [38] S. M. Kim, *Relationships among affect intens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lderly*

- people,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10-11, 2013.
- [39] M. D. Lieberman, N. L. Eisenberger, M. J. Crockett, S. M. Tom, J. H. Pfeifer, B. M. Way, "Putting feeling into words: affect labeling disrupts amygdala activity in response to affective stimuli",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Vol.18, pp.421-428, 2007.
- [40] H. I. Shin, *The effects of emotional experiences and regulation styles on depression of covert narcissism*,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23-25, 2009.
- [41] J. H. Jung,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of Korea, pp.19-20, 2016.
- [42] D. R. Lee,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interpersonal problem among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of Korea, pp.31-32, 2016.
- [43] S. H. Kang, N. W. J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4, pp.969-990, 2002.
- [44] H. Y. Choi, K. W. Min, "The study on the validation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Comparison of suppression constructs in Korean 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1, No.4, pp.71-89, 2007.
- [45] E. Diener, R. Emmons, R. Larsen,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No.19, pp.71-75, 1985.
- [46] Y. J. Ryu, *The effect of personality and level of need on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pp.16-20, 1996.
- [47]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48] H. K. Park, E. H. Kim,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ctor and partner effec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6, pp.203-217, 2017.
DOI: <https://doi.org/10.15703/kjc.18.6.201712.203>
- [49] H. A. Yoo, W. Y. So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3, pp.161-168, 2018.
- [50] S. M. Kim, *Relationships among affect intens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lderly people*,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32-33, 2013.
- [51] H. I. Cho, M. H. Lee,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suppress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0, No.1, pp.89-105, 2012.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2.20.1.006>
- [52] S. M. Jeon, I. S. Oh,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emotion processing typ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gende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5, pp.1737-1752,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5.201110.1737>
- [53] E. H. Kim, *Mediation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the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of Seoul, Korea, p.35, 2016.
- [54] E. H. Kim, M. S. Jang, H. C. Cho, "The mediational effect of vulnerability and covert narciss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Vol.4, No.1, pp.35-57, 2014.
- [55] M. J. Bae, H. I. Jo,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cognitive /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6, pp.2417-2435, 2014.
DOI: <https://doi.org/10.15703/kjc.15.6.201412.2417>
- [56] S. B. Robbins, P. Dupont,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9, No.4, pp.462-467, 1992.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9.4.462>
- [57] H. R. Hanm K. H. Lee, "The effect of immature defense mechanism on procrastinat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2003, No.1, pp.467-468, 2003.

조 한 익(Han Ik Jo)

[정회원]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學 88, 연세대 문학사
- 研 90, 연세대 심리학석사
- 98-99, Michigan State Univ. 포스트닥터 상담 및 교육심리학과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뉴로피드백

신 주 애(Joo Ae Shin)

[정회원]



- 2020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임상심리학